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92%]

갑: 정치란 정당의 선거 운동,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국무 회의 주재와 같이 정당, 국회, 정부에 관련된 활동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을: 아니야. 우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체험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 할 수 있어.

보기

- ㄱ. 갑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ㄴ.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ㄷ.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참삭 풀이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갑: 정치란 정당의 선거 운동,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국무 회의 주재와 같이 정당, 국회, 정부에 관련된 활동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 좁은 의미의 정치.

을: 아니야. 우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체험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 할 수 있어. → 넓은 의미의 정치.

보기

ㄱ. 갑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좁은 의미의 정치.

ㄴ.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 넓은 의미의 정치.

ㄷ.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좁은 의미의 정치.

ㄹ.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넓은 의미의 정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 분석

두 가지 의미의 정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법정 1번 단골 문제인데, 작년 수능에서는 정치의 의미 대신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나오든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갑은 “~에 한정된다”고 했다. 사실 정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한정된다”, “~만 해당” 등의 말이 나왔다면 그냥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그것만 보고 판단하긴 불안하니 전체를 훑어보자. “정당, 국회, 정부와 관련된 활동” 오케이, 좁은 의미의 정치 당첨.

그럼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겠다. 을은 “~도 정치”라고 한다. 이런 “A뿐만 아니라 B도”와 같은 말이 나오면 넓은 의미의 정치로 받아들이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정치”란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확실하다.

선지 분석

ㄱ. 갑은 좁은 의미의 정치 관점이므로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볼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갑이 아니라 을을 넣어도 옳은 선지가 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자.



ㄴ.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다.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볼 것이다.

ㄷ.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따라서 “갑과 달리 을은”이 아닌, “을과 달리 갑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ㄱ 선지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선지는 몽땅 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도 해당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만 정치”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약간 찝찝하지 않은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 이거 완전 대의제나 간접 민주 정치에나 해당될 법한 선지다. 좁은 의미의 정치가 꼭 간접 민주 정치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정치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 자체가 현대에 와서 생긴 관점이므로, 현대 사회에서 보통 그렇듯이 나랏일은 저 “높으신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순 있지만...) EBS와 평가원도 이를 좁은 의미의 정치로 해석했다.

ㄹ.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현상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저 옛날, 신석기 시절... 오늘은 추수를 할까, 아니면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주인 없는 소를 잡으러 갈까? 하고 의견이 나뉘었을 때 이를 합치시키기 위해 조정이 일어났을 법도 하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도 분화되지 않았는데, **국가도 부족장이고 있을 리가 없으니 정치권력이니 정부니 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를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점 모두”가 아닌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이 적절하다.

핵심 개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까지 해당한다.

COMMENT

아주 쉬운 문제다. 정답률이 92%라니. 분명 노베로 치는 아이들까지 포함된 통계일 텐데... 0점 방지를 위해 안배된 문제랄까, 사뭇히 지르밧고(참고: 표준어는 “지르밧고”이다.) 가시옵소서.